

[인도남아시아 비즈니스 정보]

인도, 미얀마와 교류 활성화

인도는 1995년부터 미얀마와 국경 무역을 시작했으며 인도 정부는 ‘동방 정책’을 내걸고 미얀마와 인도 북동부 지역의 연계 강화에 힘쓰고 있다. 최근 미얀마를 둘러싸고 중국과 인도가 적극 지원 공세를 펼침에 따라 미얀마를 향한 지원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미얀마의 국경 무역액이 전체 국경 무역의 65.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인도와의 교역액은 1.1%밖에 되지 않아 크게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는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칼라단 복합 운송 프로젝트’ 같은 인프라 사업을 적극 실시해 양국의 물류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도-미얀마 교류 현황 및 중국과의 지원 경쟁 심화

인도는 1995년 미얀마와 국경 무역을 시작했으며 2017년 9월 모디 인도 총리가 미얀마를 처음으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높은 수준의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인도는 미얀마와 국경 무역을 통해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미얀마는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 등 5개국과 접하고 있어 각각의 국경 지역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 거점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인도 정부는 ‘동방 정책’을 내걸고 인도 북동부 지역에서의 미얀마와 연계 강화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일대일로: 국제 협력 고위급 포럼’을 통해 미얀마 정부에 경제 발전과 소수 민족 문제 해결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얀마를 방문해 아웅산 수치 고문과 회담을 개최하면서 미얀마를 둘러싸고 인도와 중국의 미얀마 지원 경쟁이 격화됐다.

인도-미얀마 국경 무역 현황

미얀마 통계청에 따르면,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타무와 리과다 지역의 경우 2016년 기준 양국 간 교역액은 각각 4,800만 달러(약 548억 원)와 4,000만 달러(약 456억 원)로 두 지역을 합쳐도 전체 국경 무역의 1.1%밖에 되지 않아 중국이나 태국과 비교해 크게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얀마 국경 무역액 추이〉

단위: 백만달러, %

국경 지역명	접경국	2015년			2016년			구성비(2016년)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무세	중국	3,810	1,568	5,378	3,446	1,639	5,085	70.2	57.2	65.4
마와디	태국	44	682	726	60	868	929	1.2	30.3	11.9
타무	인도	33	13	46	38	10	48	0.8	0.3	0.6
리과다	인도	20	6	26	25	15	40	0.5	0.5	0.5
합계(기타 국경 거점 포함)		4,549	4,910	9,459	4,910	2,867	7,777	100.0	100.0	100.0

출처: JETRO

인도-미얀마 국경 무역 한계

미얀마와 국경 무역이 이뤄지고 있는 타무나 리과다 지역에서 인도 근접 도시까지는 차로 3시간 정도가 걸리며 현지 도로 사정상 13톤 이상의 화물차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이렇게 때문에 인도가 미얀마와의 국경 무역을 중국이나 태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 및 개선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현재 인도 북동부 지역과 미얀마 사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도 동북부 미조람 주부터 미얀마의 시트웨이 항까지를 도로와 수로로 연결하는 ‘칼라단 복합 운송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 정부가 이미 미얀마 시트웨이에 항구를 건설함에 따라 양국의 물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출처

JETRO, 미얀마-인도 간 국경 무역의 현황, 2018.1.15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2018/c65b52ee7b9ade0e.html>